



아시아 최초 '옴니에어' 인증 획득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는 (주)웨이티즈

웨이티즈(Wayties)는 첨단 V2X(차량·사물 간 통신) 표준 시험 및 검증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자율협력주행 시대의 안전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기술 집약형 혁신 기업이다. 설립 초기부터 글로벌 표준화 기구인 옴니에어(OmniAir) 협회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며 아시아 최초로 공식 인증을 획득하는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전체 인력의 대부분을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한 핵심 R&D 역량과 글로벌 플러그페스트(PlugFest)에서 축적한 실전 검증 경험을 결합하여, 외산 장비가 주류를 이루던 검증 시장에서 당당히 독자적인 기술 국산화를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통신 검증 기술 주권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웨이티즈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복합적인 C-ITS 환경과 실제 도로 주행 상황을 가상 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해내는 통합 테스트 솔루션 라인업에 있다. 특히 최대 수백 대의 차량 통신 혼잡 환경을 모의하는 대규모 통신 혼잡 생성 시스템(WCEX-CGTS)을 통해 도심 밀집 구간에서의 데이터 수신율과 지연 시간을 정밀하게 평가하며, 실제 교통 제어 시나리오와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의 정상 구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정한다.

단순한 계측 장비 공급사를 넘어 파트너사의 미래 모빌리티 완성을 함께 책임지는 전략적 R&D 파트너로서, 고속도로 작업 차량 안전 체계 확산 등 사람 중심의 첨단 스마트시티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다. 첨단 통신 검증 기술을 통해 전 세계 도로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마침내 '교통사고 제로(Zero)'의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사회를 완성해 나갈 웨이티즈의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 세계가 인정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사고 없는 미래 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

- (주)웨이티즈 정홍종 대표

아시아 최초로 미국 '옴니에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글로벌 기관들보다 빠르게 최신 V2X 표준 시험 기술을 선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글로벌 선도 기관 및 대기업들보다 빠르게 최신 V2X 표준 시험 기술을 선점하고 고도화된 솔루션을 출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경쟁력에서 비롯됩니다.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글로벌 표준화 참여 : 웨이티즈는 설립 초기부터 OmniAir 협회 회원사로 등록하여 북미 및 글로벌 V2X 시험인증 규격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이 최종 확정되기 전부터 규격에 부합하는 테스트 아키텍처를 선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술연구소 중심의 R&D 역량 : 당사는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전체 인력 중 대부분(총 13명 중 10명의 전문연구원)을 기술연구소에 집중 배치한 기술 집약형 조직입니다. 이러한 인력구조 덕분에 시장의 요구사항과 최신 규격(SAE J2945/1 등)을 분석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GNSS 음영구간 LTE-V2X 통신성능 검증 용역 수행을 위한 현장장비 구축 사진

모빌리티 생태계 내의 실전 검증 경험 : 당사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 회원사로서 국내외 C-ITS 상호호환성 시험 행사는 물론, 글로벌 OmniAir PlugFest에 공식 '테스트 스테이션 프로바이더(Test Station Provider)'로 참여해 왔습니다. 전 세계의 쟁쟁한 V2X 장비들과 실전에서 호환성을 검증하고 데이터를 분석했던 풍부한 현장 경험이 글로벌 표준 기술 선점의 강력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V2X 표준 시험 기술의 선점은 단순히 테스트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율주행 및 C-ITS 통신 규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LTE-V2X 및 5G-NR-V2X로 진화하는 모빌리티 패러다임 속에서 당사의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복합적인 C-ITS 환경에서는 인프라의 안정성 검증이 핵심입니다. 실제 도로 주행 환경을 가상 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해내는 귀사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웨이티즈는 복합적인 C-ITS 환경을 벤치(Bench) 및 실도로상에서 정밀하게 구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독보적인 통합 V2X 테스트 솔루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V2X 통신 혼잡 생성 시스템(WCEX-CGTS) : 당사의 가장 강력한 차별점 중 하나는 최대 수백 대의 차량이 동시에 메시지를 송출하여 통신 정체를 일으키는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복잡한 도심 교차로나 정체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부하 상황을 신호 발생기 및 시뮬레이터를 통해 완벽히 모의함으로써, 밀집 환경에서의 데이터 수신율과 지연 시간을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검증 : 단순히 무선 신호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도로의 교통 제어 시나리오와 연동된 C-ITS 서비스 기본 기능 시험을 수행합니다. OBU(차량 탑재 단말기) 및 RSU(노변 기지국)가 수신한 메시지가 안전 경로나 도로 작업 구간 주의 등 실제 모빌리티 서비스 상에서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지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판정합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가상 검증 기술력을 바탕으로, 웨이티즈는 한국도로공사의 “GNSS 음영구간 LTE-V2X 통신능력 검증 용역” 및 ITS Korea가 주관하는 “통신 약조건 상 LTE-V2X 통신능력 시험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적 신뢰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및 주요 부품 제조사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경쟁한 기업들과 함께 모빌리티 생태계를 주도하는 귀사만의 협력 전략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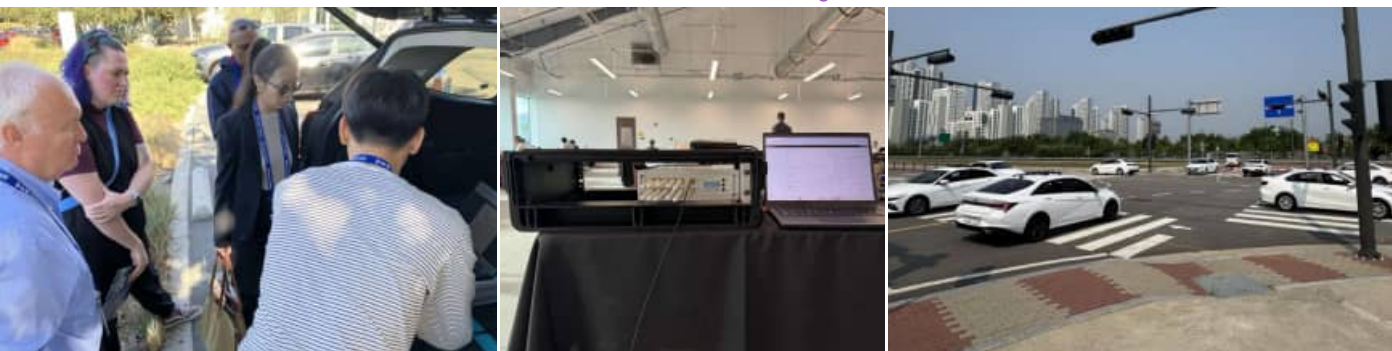
수요자 맞춤형(Customized) 솔루션 신속 제공 : 대기업이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은 개발 단계에 따라 고유의 고도화된 시험 규격과 까다로운 데이터 분석 툴을 요구합니다.

웨이티즈는 유연한 하드웨어 구조와 자체 개발한 핵심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어, 파트너사가 직면한 통신 에러 및 프로토콜 분석 요구사항에 맞춰 시험 아키텍처를 실시간으로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능력이 파트너사의 R&D 사이클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줍니다.

기술 표준화의 선제적 공유와 생태계 허브 역할 : 당사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ATECH(자동차부품연구원), KETI(전자부품연구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및 표준화 단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플러그페스트(PlugFest)를 통해 획득한 상호호환성 데이터와 최신 OmniAir 표준 동향을 파트너사들과 공유함으로써, 완성차 및 Tier-1 부품사들이 글로벌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게이트키퍼 및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의 주요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된 글로벌 PlugFest 기술 시연 현장



종합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기업과의 전략적 연합 : 통신 검증에 국한되지 않고 모빌리티 전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로보틱스(Seoul Robotics), 모라이(MORAI) 등 AI 및 3D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분야의 선두 스타트업들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와 V2X 통신 데이터를 융합한 차세대 자율협력주행 검증 환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며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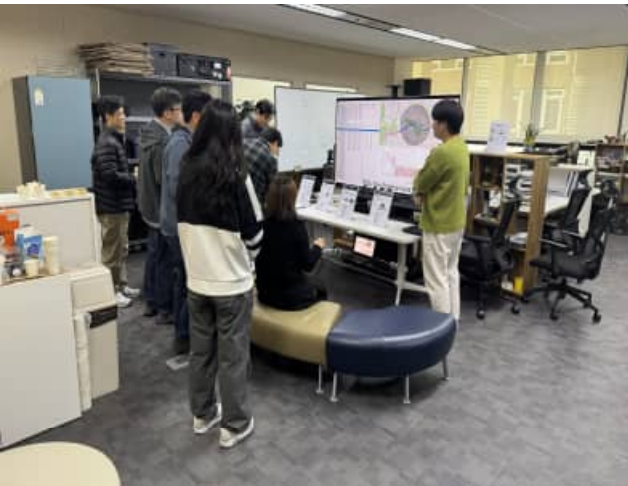
웨이티즈의 협력 전략은 단순한 '공급사'의 개념을 넘어 파트너사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완성도를 함께 책임지는 '전략적 R&D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제조사들과의 견고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전 세계 도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표준 솔루션 확산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외산 장비가 주류를 이루던 검증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 국산화를 이뤄내셨습니다. 이러한 고밀도의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특별한 조직문화가 있나요?

10여 명의 핵심 연구 인력으로 외산 장비와의 기술 격차를 뛰어넘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웨이티즈만의 고유한 세 가지 조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OPEN, CONNECT, PLAY'의 혁신 슬로건 실천 : 당사의 핵심 가치이자 비즈니스 지향점인 'OPEN(개방)', 'CONNECT(연결)', 'PLAY(즐거움)'는 조직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최신 기술 트렌드와 연구 성과를 '개방형'으로 공유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팀 간의 경계 없는 '연결'을 통해 융합형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하나의 도전적인 '놀이(Play)'처럼 즐길 수 있도록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합니다.

웨이티즈가 모회사(LIG 아큐버)에 자사의 V2X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문화 : V2X 검증 기술은 정해진 정답이 없는 첨단 분야입니다. 웨이티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코딩하여 필드 및 벤치 테스트에 적용하는 '기민한(Agile) 프로토타이핑'을 장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자산으로 인정받으며, 빠른 피드백 루프를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전문성 극대화와 모회사와의 시너지 : 당사는 이동통신 시험·계측 분야의 글로벌 선두 주자인 (주)LIG ACCUVER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대기업 수준의 안정적인 기술 인프라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이식받았습니다. 스타트업의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속도와 모회사의 탄탄한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가 결합되어 최적의 기술 혁신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웨이티즈의 국산화 성공은 단순한 수입 대체 효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통신 검증 기술 주권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몰입도 높은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차세대 5G-V2X 국산화 시장 역시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어려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낸 원동력은 결국 '사람'일 텐데요. 웨이티즈가 기술 혁신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첫째, 집요한 '전문성'과 스스로 답을 찾는 해결사(Expertise & Problem Solver) V2X 테스트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급변하고 복잡한 통신 에러가 수시로 발생하는 고난도의 분야입니다.

ITS 아태총회 및 세계총회 등 주요 글로벌 전시회 시연 현장





웨이티즈 정홍중 대표가 2025년도 제23차 ITS 표준총회에서 C-ITS 본사업 지원 및 향후 로드맵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사가 원하는 인재는 자신의 담당 분야(RF, 임베디드, 무선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등)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집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고객사와 파트너사가 직면한 통신 불량 및 인프라 불안정 문제를 주도적으로 정의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창의적인 솔루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태도'를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둘째, 경계를 허무는 '개방성과 협력적 소통' (Openness & Collaboration) V2X 검증 솔루션은 정밀 하드웨어 기계 제어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분석 엔진이 완벽하게 융합되어야 완성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역에만 갇혀 있는 천재보다는,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기술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OPEN'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선호합니다.

셋째, 내일의 모빌리티 안전을 그리는 '가치 지향성' (Value-Driven Visionary) 우리가 개발하는 장비는 단순한 통신 계측기가 아니라, 미래 자율주행 도로 위에서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당사의 비전인 "The Smart Way to Test V2X"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내가 짠 코드 한 줄과 내가 설계한 회로 하나가 미래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숭고한 가치에 가슴 뛰는 인재를 환영합니다.

웨이티즈는 최고의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모회사 LIG ACCUVER와의 연계를 통한 전폭적인 기술 교육 및 커리어 성장 기회를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 자율협력주행 인프라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필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웨이티즈가 대중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세 가지 기업 가치

첫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기업" 당사의 솔루션은 일반 대중들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축한 V2V, RSE 성능평가 시스템과 통신혼잡 생성 장비(WCEX 시리즈)를 통과한 자율주행 기술만이 실제 도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웨이티즈는 "그 기업이 검증한 도로와 차량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탈 수 있다"는 절대적 신뢰의 대명사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정적이고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혁신가" 당사는 C-ITS 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도로 안전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나 국도 상에서 추돌 위험이 매우 높은 '고소작업 차량 및 도로작업 차량'에 당사의 V2X 시스템(RSU)을 장착하여, 접근하는 차량들에게 선제적으로 위험 메시지(TIM, BSM)를 송출하는 안전 체계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처럼 교통 약자와 작업자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첨단 스마트시티'의 기반을 닦는 기업으로 각인되고자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술 주권을 세계에 빛낸 글로벌 리더" 외산 장비의 높은 벽을 허물고 독자적인 기술 국산화를 이뤄낸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자율주행 표준 시장에서 표준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V2X 기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맺음말: "The Smart Way to Test V2X"

웨이티즈가 추구하는 미래는 단순히 뛰어난 계측 장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첨단 통신 검증 기술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도로의 위험 요소를 가상 공간에서 먼저 제거하고, 마침내 "교통사고 제로(Zero)"의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사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안전의 시작점에 언제나 웨이티즈가 서 있겠습니다.

웨이티즈 임직원들이 2025년 단합대회 현장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